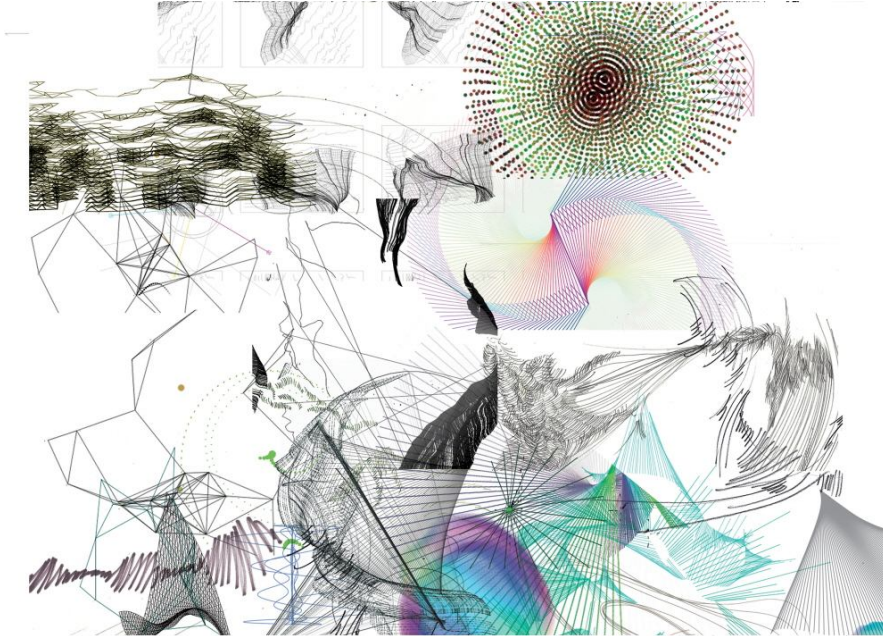


# 2017 베니스 비엔날레 초대형 현대미술 전시

## ‘하이퍼파빌리온(HyperPavilion) 개관’

- 현대미술과 최신 기술을 결합한, 압도적이고 몰입감(Immersive)있는  
경험으로의 예술전시

- 디지털 시대의 예술을 선보이는 e- 르네상스의 초대



Claire Malrieux, *Climat General 2017*, preliminary drawings, Courtesy of HyperPavilion, Venice with the support of DICREAM

(주)패블러스(Fabulous Inc., 대표 정성복)가 오는 5월 13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막하는 ‘제 57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대규모 현대 미술 전시관인 ‘하이퍼파빌리온(HyperPavilion)’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비엔날레의 주요 국제전시장소로 알려진 아르세날레(Arsenale) 북쪽에 위치한 약 1천 평 규모의 전시장에서 열리며, 전시의 총괄 제작사인 (주)패블러스가 프랑스와 영국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인 필립 리스-슈미트(Philippe Riss-Schmidt)를 전시 큐레이터로 초청하여 기획하였다.

‘하이퍼파빌리온’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예술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다룬 작품들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다. 필립 리스-슈미트는 “하이퍼파빌리온은 디지털 아트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예술을 담은 전시”라고 소개하며, 참여작가들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의 미래에 대한 물음, 도전, 대응**’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특별히 이번 전시공간 및 전시규모에 최적화된 작품을 선보인다”고 전한다.

이번 전시에는 2006년 증강 현실적 설치작품인 ‘Map’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아람 바르톨(Aram Bartholl), NASA와 협업하여 ‘지구상 현존하는 가장 검은 검은색(The Blackest Black on earth)’인 나노블랙(Nanoblack)을 만들어 자신의 작품에 사용하는 과학자겸 아티스트인 프레데릭 드

와일드(Frederik De WILDE), 2017년 '영국 저우드(Jerwood) FVU상'<sup>2</sup>을 수상한 로렌스 렉(Lawrence Lek), '마르셀 뒤샹 상(Prix Marcel Duchamp)'<sup>1</sup>의 2014년 수상작가인 줄리앵 프레비외(Julien PRÉVIEUX)와 2005년 수상작가인 클로드 클로스키(Claude Closky)를 비롯한 총 11명의 세계적인 작가가 참여한다.

또한 이번 전시는 대형 프로젝션, '360도 이머시브 시네마(Immersive Cinema) - 써클비전', '홀로그램 씨어터(Hologram Theater)', 멀티스크린 등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기술이 캔버스가 되어 지금까지의 비엔날레 전시에서 볼 수 없었던 스케일의 작품들을 전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이퍼파빌리온' 전시기획의 시작은 전세계 고품질의 공연예술을 고급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 '소수만이 누렸던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함께 향유'하도록 노력해 온 (주)패블러스가 미술이라는 분야로 시야를 넓힌 데서 시작되었다. 정성복 대표는 전세계 유명 아티스트 및 갤러리들과의 교류를 통해 전시 아이디어를 구상하던 중, 같은 비전을 가진 필립 리스-슈미트(Philippe Riss-Schmidt)를 만나 구체화시키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우리가 제시한 디지털 시대의 기술이라는 새로운 캔버스를 활용하여 이를 예술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열린 작가들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미 유럽과 북미의 예술계에서는 디지털 기술 자체가 눈을 사로잡는 예술의 주제가 되는 것을 넘어, 작가의 메시지와 철학을 담은 예술의 표현을 위한 도구(미디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벨기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 작가들과 패블러스가 제시하는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통해 대중에게 압도적이며 몰입감(Immersive)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전시를 위해 2008년과 2012년 **그라미 어워드(Grammy Awards)**에서 클래식 부문 최우수 녹음 기술상(Best Engineered Album, Classical)을 2차례 수상한 바 있는 (주)사운드미러의 황병준 대표가 음향 감독을 맡아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주)패블러스는 오는 5월 11일 오후 12시(현지 시간)부터 '하이퍼파빌리온' 전시관에서 VIP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프리뷰(Preview)' 행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hyperpavilion2017.com](http://www.hyperpavilion2017.com)과 [www.instagram.com/hyperpavilion2017](http://www.instagram.com/hyperpavilion20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up>1</sup> Prix Marcel Duchamp(마르셀 뒤샹 상): 프랑스 조각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ADIAF(현대미술국제화추진회)가 현대미술사의 대표적 인물인 마르셀 뒤샹을 기념하고, 매년 프랑스 미술을 세계화하는데 기여한 젊은 작가 한 명에게 주는 상.

<sup>2</sup> Jerwood/FVU Award: 영국의 Jerwood Charitable Foundation(저우드 자선재단)과 Film and Video Umbrella가 매년 5년 경력의 'moving-image artist' 2명에게 수여하는 상

[표1.] 하이퍼파빌리온 참여 작가 소개

No	작가	작품 소개
1	<p>아람 바르톨 ARAM BARTHOLL</p> <p><a href="http://www.datenform.de">www.datenform.de</a></p>	<p>‘디지털 미디어의 전면화에 저항하는 아티스트’로 불리는 아람 바르톨은 ‘베를린 예술대학(University of the Arts, UDK)’에서 건축을 전공했으며, 2001년 졸업논문 ‘bits on location’는 ‘브라우저데이 상(Browserday Competition)’을 수상했다. 그는 ‘네트워크 데이터 세상은 실생활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무엇이 사이버 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디지털 혁명은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 네트워크 데이터 공간과 일상생활과의 관계를 주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준 2006년 작품 &lt;Map&gt;은 우리의 현실 세계와 가상적 이미지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증강 현실적 설치 작품이다. 가상과 현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이분법적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p> <p>&lt;수상경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Ars Electronica)’ 가작</li> <li>- 2007년 17회 독일 ‘브레멘 비디오 아트 어워드(Bremen Award for Video Art)’ 대상</li> <li>- 2007년 독일 ‘트랜스미디어알레 어워드(Transmediale Award)’ 가작</li> <li>- 2001년 독일 ‘브라우저데이 상(Browserday Competition)’</li> </ul>
2	<p>뱅상 브로퀘르 VINCENT BROQUAIRE</p> <p><a href="http://www.vincentbroquaire.com">www.vincentbroquaire.com</a></p>	<p>뱅상 브로퀘르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장식예술학교(Ecole des arts décoratifs)를 졸업했다. 현재 낭트를 무대로 주요 움직이는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재미있고 신랄한 순간을 포착해 재치있는 작품으로 재현해내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침범과 기술의 발전 등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p> <p>&lt;전시이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Mon oeil, Centre Pompidou</li> <li>- 2016년 Enter, Save and Exit, CEAAC</li> <li>- 2016년 Cave Studies, Fondation Bullukian</li> <li>- 2016년 Museiformes, Centre Pompidou</li> <li>- 2016년 Drawing After Digital, XPO</li> </ul>

3	<p>클로드 클로스키 CLAUDE CLOSKY</p> <p><a href="http://www.sittes.net">www.sittes.net</a></p>	<p>클로드 클로스키는 무제한적인 규칙을 사용한 끊임없는 변형의 반복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의 작품은 언뜻보면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논리로 배열된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미한 기호들의 무작위적인 등장을 통해 일종의 다다이즘적인 유머를 표현해내고 있다. 그의 작업은 매스컴과 소비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찬미와 풍자적인 비평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p> <p>&lt;수상경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 프랑스 'Grand Prix National d'arts plastiques'</li> <li>- 2005년 현대미술국제화추진회(Adiaf) '마르셀 뒤 상 상(Marcel Duchamp Prize)'</li> </ul>
4	<p>프레데릭 드 와일드 FREDERIK DE WILDE</p> <p><a href="http://frederik-de-wilde.com">frederik-de-wilde.com</a></p>	<p>프레데릭 드 와일드는 벨기에에서 활동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이다. 그의 예술활동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개념'이 핵심이며, 그의 작품은 생물학적이고 기술적인 시스템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NASA와의 협업으로 개발한 '가장 검정인 검정색(the Blackest-Black)'으로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를 사용해 전세계 우수대학과 기관과의 다양한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다.</p> <p>&lt;수상경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the Best European Collaboration Award'</li> <li>- 2010년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Ars Electronica)', 넥스트 아이디어 상(Next Idea Award)'</li> </ul>
5	<p>로렌스 렉 LAWRENCE LEK</p> <p><a href="http://lawrencelek.com">lawrencelek.com</a></p>	<p>로렌스 렉은 영국 명문대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 Cambridge)'와 건축학교인 '영국 건축협회 건축학교(AA, Architectural Association)'를 졸업했다. 그는 게임 소프트웨어, 비디오 등을 사용해 관념적 세계와 '장소 특정적(site-specific)'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낸다. 실제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그의 디지털 환경은 '가상이 우리의 현실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반영한다. 2016년에는 '미디어시티 서울 2016'에 '시바의 길(2072년의 서울)'이라는 작품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그의 대표작 '인스톨레이션 3013(3013 Installation)'은 현재 AA 건축학교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다.</p> <p>&lt;수상경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영국 저우드(Jerwood) FVU상</li> <li>- 2016년 스위스 'Vordemburge-Gildewart Foundation Award'</li> <li>- 2015년 영국 왕립미술아카데미 'Dazed Emerging Artist'</li> </ul>

		Award'
6	클레르 말뤼유 CLAIRE MALRIEUX	<p>클레르 말뤼유는 '프랑스 국립 예술 학교(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Paris)'를 졸업했으며, 현재 파리를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신기술, 알고리즘, 데이터로 그리는 드로잉 신택스(Syntax)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정보생태계를 하나의 작품으로 구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지구기후 혹은 과학정보를 자신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즉각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제시한다.</p> <p>그녀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형태, 서술, 그리고 지식에 대한 작품을 창작해낸다. 작품 안에서 그녀는 나레이터이자, 큐레이터이며 동시에 연구자이다.</p> <p>&lt;전시이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Atlas du Temps Present', Musée des Arts Decoratifs</li> <li>- 2011년 'Début', ENSCI(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li> <li>- 2010년 'fantasmagoria', Cristoffoli, Paris</li> <li>- 2010년 'Pièces montrées', Galerie Joyce</li> <li>- 1998년 'D'une île, l'autre', Galerie Bernard Jordan</li> </ul>
7	테오 마솔리에 THÉO MASSOULIER <a href="http://www.theomassoulier.com">www.theomassoulier.com</a>	<p>테오 마솔리에에는 프랑스 '리옹 국립예술학교(Ecole Nationale des Beaux-arts de Lyon)'를 졸업했다. 그는 주로 자연과학, 인류학, 고고학에 대한 상상력과 탈인간(Post-Human)의 출현, 엔트로피(Entropy)의 지배 등과 같은 최근 인간사회의 진화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적이고 다이나믹한 형태의 조소와 비디오를 활용한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딥타임(Deep Time)', 접근 불가능한 우주의 역사, '출현의 개념(the Concept of Emergence)'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p>
8	쥘리앵 프레비유 JULIEN PRÉVIEUX <a href="http://www.previeux.net">www.previeux.net</a>	<p>쥘리앵 프레비유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종합 예술가이다. 그의 예술활동은 인간과 기계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단순히 SF 장르에 대한 선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기술이 지식 체계 및 구조의 진화와 쇠퇴에 끼친 역할'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심으로 해석된다.</p> <p>&lt;수상경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현대미술국제화추진회(Adiaf) '마르셀 뒤 상 상(Marcel Duchamp Prize)'</li> <li>- 2011년 'Le Prix Sciences Po pour l'art Contemporain'</li> </ul>

9	<p>랩 엔티투 LAB NT2</p>	<p>2004년에 설립된 랩 엔티투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퀘벡 대학교 (University of Quebec)의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디지털 예술과 문학을 널리 알리고, 디지털 문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하이퍼 미디어 예술 작품을 보존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새로운 연구·전략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작품은 ‘예술과 문학 작품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p> <p>&lt;전시이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hypermedia.MTL’</li> <li>- 2012년 ‘SPEEDSHOW de bleuOrange’</li> </ul>
10	<p>폴 수비홍 PAUL SOUVIRON <a href="http://paulsouviron.net">paulsouviron.net</a></p>	<p>폴 수비홍은 주로 조소 작품을 창작하는 아티스트로 불룸과 사운드 설치를 통해 작품에 미묘한 긴장감을 더한다. 그는 이런 긴장감을 이용해 사회적 균형을 교란시키고 자극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세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과학자들이 현재를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인 ‘인류세(Anthropocene)’로 보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주변 세상을 인류학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p> <p>&lt;전시이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Ambitions’, Rennes Biennale OFF</li> <li>- 2016년 ‘STUWA 2016’, Sundgau, Austria</li> </ul>
11	<p>테오 트리안타필리디스 THEO TRIANTAFYLLIDIS 참고 사이트 <a href="http://creators.vice.com/en_us/topic/theo-triantafyllidis">creators.vice.com/en_us/topic/theo-triantafyllidis</a></p>	<p>테오 트리안타필리디스는 그리스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이자 건축가이다. ‘아테네 국립 기술 대학’을 졸업하고, UCLA에서 순수미술 분야 석사학위(Master of Fine Arts)를 수여받았다. 웹페이지, 가상증강현실, 게임,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설치미술을 자신의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 예술과 상호 작용하는 가상 환경을 탐구하고 있으며, 그의 연구는 그리스 ‘오나시스 재단(Onassis Foundation)’의 후원을 받고 있다.</p> <p>&lt;전시이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a mountain made to look like a person holding a knife’, Sargent’s Daughters Gallery, New York</li> <li>- 2016년 ‘Le Cabanon’, the Cabin LA</li> <li>- 2016년 ‘DiMoDA 2.0 Morphe Presence’, the Superchief Gallery, New York</li> </ul>

### **(주)패블러스(Fabulous Inc.) 소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룹(Creative Directors' Band)인 (주)패블러스(대표 정성복)는 성공적인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안목과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공연예술을 한 차원 높은 경험으로 기획해 온 (주)패블러스는 세계적인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Notre Dame de Paris)', '적과 흑(Le Rouge et le Noir)', '피터팬(Peter Pan)', '아더왕의 전설(La legende du Roi Arthur)', '1789 바스티유의 연인들(1789, les amants de la Bastille)', '태양의 서커스' 창시자 노만 라투렐(Normand Latourelle)이 연출한 공연 '오디세오(Odysseo)'를 3D와 VR 등 최신기술을 사용해 영상으로 제작했으며, Gaumont Pathe, F1, UPI, Warner 등 세계적 배급사를 통해 전세계로 유통하는 기업이다. 이 중 '오디세오'는 CGV에서 스크린X의 첫 번째 작품으로 상영된 바 있다. 최신작인 '노트르담 드 파리'는 오는 5월 22일 프랑스 칸느(Cannes)에서 열리는 필름 마켓에서 전세계 바이어 및 미디어를 대상으로 스크리닝을 통해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의 디지털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이퍼파빌리온(HyperPavilion)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관람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를 제작하여 오는 5월 제 57회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www.fab-pictures.com](http://www.fab-pictures.com)

### **[문 의]**

(주)패블러스 이보래 실장

Email: [boraee.lee@fab-pictures.com](mailto:boraee.lee@fab-pictures.com) | Mobile: 010-8237-6171

